아침을 여는 우리가곡음악회

27일 광주시립합창단 첫 모닝음악회

보통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후 7시나 7시30분이다. 이 시간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이 좀처럼 짬을 내기 어렵다. 주부들이 가장 여유로운 때는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한가롭게 커피 한잔 마시는 오전 10시~12시 사이.

서울 등지에서는 이런 주부 관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등이 오래전부터 인기를 모았지만 광주에서는 좀처럼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광주시립합창단(단장·유병무)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모닝 음악회를 준비했다. 27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아침을 여는 우리가곡 음악회'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윤용하 곡 '보리밭', 김동진 곡 '봄이 오면', 조두남 곡 '뱃노래',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김규환 곡 '철새', 이수인 곡 '별' 등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또 바리톤 염종호 씨가 '산아' '박연폭포'를, 소프라노 윤은주 씨가 '신아리랑' '추억' 등을 선사한다. 전석 초대.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년째 '모나무르' 실내악단 이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 형 석 교수

"좋은 음악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해요"

지난 18일 열린 모나무르 실내악단의 정기연주회 현장. 늘 가장 앞 자리에 앉아 단원들을 리드했던 이형석(전남대 교수) 단장이 올해는 처음으로 세컨 바이올린 파트의 가장 뒷자리에 앉았다. 공연 후 이 교수는 "제자들 뒤에 앉아서 연주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며 "단원들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껴지더라"고 말했다.

척박한 광주의 클래식 환경 속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모나무르 실내악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척박한 클래식 환경속 꾸준히 활동

창단부터 모나무르를 이끌어온 이 교수는 "올해는 슈만의 '피아노 5중주곡' 등 관객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모나무르가 출범한 것은 지난 1996년. 외국에서 공부하던 제자들이 속속 들어오자 이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연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실내악단을 창단했다. 연주회 때마다 협찬 등을 통해 경비를 마련해야하는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2년 째 되던 해 부터는 외국의 유명 음악인들을 초빙, 실력을 연마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지난 1999년부터 5년간 초빙했던 벨기에 내셔널심포니 상임악장 조지 옥토스는 기억에 남는 인물이다.

외국 유명음악인 초빙, 실력 연마

"조지 옥토스 때문에 음악관이 바뀌었다는 단원들도 많아요. 그에게 지도를 받고 함께 연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의욕에 차 있던 제자들에게 음악적 방향을 일깨워줬던 것 같아 참 뿌듯합니다."

외국 연주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집에서 15~20일간 그들을 재우고, 식사를 대접한다. 30평대 아파트에서 50평대 아파트로 집을 옮긴 것도 조지 옥토스를 부르고 난 후였다.

이 교수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많은 악기를 갖고 있던 아버지에게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시향 등에서 활동하던 이 교수가 광주를 찾은 건 지난 1982년 광주시향 악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이후 전남대에서 교편을 잡게 됐고 30년 넘게 광주 음악계를 지켜왔다. 이 교수는 또 1990년 박성용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금호 4중주단'을 조직, 93년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모나무르 공연이 열리던 같은 시각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들 경민(31)씨는 서울에서 공연 중이었다. 살레시오 초등학교 재학중 벨기에 브뤼셀로 유학간 경민씨는 브뤼셀 왕립음악원에 최연소 수석합격, 한국인 최초 샤펠뮤지컬렌느 엘리자베스 입학 등 다양한 화제를 뿌렸다.

아들·며느리도 바이올리니스트

귀국 후 경민씨는 역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인 부인 박재원씨와 서울에서 활동중이며 오는 10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할 예정이다.

"저희 모나무르가 광주실내악의 씨를 뿌린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단원들이 다른 실내악단에 참여하며 큰 역할을 하는 걸 보면 행복하죠. 아쉬운 건 단원들에게 프로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는 점이죠. 또 유능한 제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채 '떠돌고 있는 것'도 안타깝구요."

이 교수는 앞으로 중주단 등 새로운 형식으로 모나무르의 전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교수는 "광주문예회관의 음향시설이 좋다는 평이 있었으나 이제는 음향시설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며 "문예회관이 그 명성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명고수 김명환선생 기념비 제막

오늘 곡성군민회관 앞…도올 김용옥 강연회도

'조선 최고의 명고수(鼓手)'로 이름을 떨친 일산(一山) 김명환(金明煥·1911~1989) 선생을 기리는 기념비(사진)가 선생의 고향인 곡성에 세워졌다.

곡성군 옥과면에서 만석꾼 김용현의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난 일산은 장판개·임방울·송만갑·김창환 등 당대 명창의 고수를 도맡아 했던 명고수로 지난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기능보유자가 된 인물.

김명환 선생의 제자들 모임인 일산회는 25일 오후3시 곡성군민회관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다.

지난 1978년 결성된 일산회는 백대웅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장, 도올 김용옥, 김동현 광주교육대 교수, 정회천 전북대 교수 등 김명환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던 회원들의 모임.

일산회가 모은 1천500만원의 기금으로 세워질 기념비의 몸체 제작은 조각가 김행신(전남대 예술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도올 김용옥씨가 비문을 썼다.

한편 이날 제막식후에는 김용옥 교수가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곡성은 교육의 중심이요, 한국 농촌 문화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색깔있는 전시' 뭘 볼까?

전통기와·환경·현대 영상매체… 골라보는 재미

올 봄 광주·전남에서 '색깔있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려 취향따라 골라볼 수 있는 재미를 주고 있다.

수 천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전통기와에 글씨를 새긴 기와 전각전을 비롯, 환경미술제, 영상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 등이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옛 기와에 새긴 꿈'=김충렬씨는 기와에 글씨를 새겨넣는 전각작업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작가다. 이번 3번째 개인전에서는 47점의 기와 작품을 선보인다. 백제기와에 글씨를 쓰고 단청을 입힌 '매월초당'과 차(茶)의 경지를 글씨로 새긴 '명선(茗禪)'은 왜 기와가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건축 재료인 지 짐작케 한다. 초의선사의 '동다송'을 기와에 새긴 뒤 탁본한 작품과 대나무 뿌리에 칼을 댄 서각은 끊임 없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의 예술혼을 엿보게 한다. 26일까지 창갤러리.

이이남 작 '와인파티-꿈'

▲제2회 환경 미술제= '숲으로 가는 소풍'을 주제로 오는 7월20일까지 광주 롯데화랑과 전남도립 옥과미술관, 문화공간 '서동'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설치·회화·사진 등 환경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60여명의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서동'은 남구 서동 서현교회 인근 단독주택을 개조한 신설 문화공간으로, 시민의 소중한 여가 공간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사직공원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각을 담아 낸다.

'서동'은 중앙로 담벼락에 18m 규모의 걸게그림을 설치한 데 이어 20여점의 환경관련 작품들을 전시한다. 롯데화랑은 환경 관련 설치작품 11점과 사진들을 전시하며, 옥과미술관 실내외 전시장에서는 27점의 환경작품이 선보인다.

▲'땅 사람 그리고 꿈' 전=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는 이수영씨와 방우성, 이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수영씨는 버려진 공터에서 수집한 밥상이나 천조각으로 만든 설치작품과 그 공터를 지나는 사람소리 등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준다. 설치작업을 하는 방우송씨는 흑인의 얼굴이 빗방울에 씻겨 사라지는 영상작품 등을 통해 기록(Record)이라는 행위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이남씨는 개인전 '실상과 허상'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상과 허상'을 교묘하게 재구성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5월17일까지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태현 2006년 '飛上'

목포·순천 이어 내일 광주 독주회
11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독주회

지난 2002년 독주회 후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간을 가졌던 피아니스트 김태현(광주대 교수) 씨가 2006년 비상을 시작했다.

김씨는 목포(19일), 순천(24일)에 이어 26일 오후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또 8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음악춘추 초청 독주회가 예정돼 있으며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독주회'(11월), '에릭사티의 밤'(12월),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플레기움 챔버 오케스트라 지휘(5월)도 맡게 된다.

26일 공연에서는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에 의한 6개의 대 연습곡'과 '피아노 소나타 나단조'를 들려줄 예정.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김씨는 독주회마다 한 명의 작곡가를 집중 탐구할 예정. 특히 에릭 사티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꾸려간다.

서울대를 졸업한 김씨는 북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휘를 부전공했다. 0502-222-22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수완·신창·첨단지구
택지·상업용지 중개전문

구입상담
주유소·공장, 충전소, 골프연습장, 병원, 복지시설등 대형사업용 부지
매도상담
대형 토지, 건물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중개합니다

첨단지구 상업용지 100평 115평 150평 202평 550평 600평 1100평 3000평 기타
수완택지개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상업용지등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우량임야 (복지시설, 기도원, 골프장, 추시 등) 보성 4만평, 9만평
골프연습장, 대형물류유통단지 광산구 1만평, 2만평
호텔, 수익성건물
주유소 1300평 15억
골프연습장 45억
광주인근 녹지·사업용 부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골프연습장부지 6500평 물류·공장부지 2900평 2600평 수완동 4차선 접 1100평 삼거동 2차선접 2500평 3000평 찰석동 4차선접 1150평 농로접 200평
전원주택부지 도로·경관 최고 담양 2000평 1900평
공장 장성 3000평 하남공단 720평

• 기타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

장성·담양권 물건구함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지하1층~지상6층, 연건평-2,500평
■특별분양·임대 상담환영

종합병원
▶엘리베이터 2대
▶주차장(150대) 완비
▶건물 준공 검사필
▶분할도 가능함

사우나(찜질방)
▶주차장 완비
▶제반시설 및 지하수 풍부
▶장성군민의 절대위치, 희망업종

건축주, 시공사,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주택이 직접 분양·임대분양

장성 삼호센트럴타워
●분양/임대 상담문의:061)393-5550
●특 별 상 담(본부장):011-624-1115

NGI 국 민 지 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천분의 1 150,000원 60,000원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전남전지역 지번도 판매
(매장방문시 사은품 증정)

• 광주지사 : 062-385-0114
• 목포지사 : 061-284-7833
• 순천지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쌍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용한공인중개사
T.(代)682-8911
(핸)016-643-3583, 011-633-6782
(풍암2지구 미래우체국건너편 쌍용지동차원)

원룸, 상가전문
☛ 서구 풍암동 원룸(신축) 보증금 3,500/월세 220만 포함 (3층 주택 미포함) 매매가:4억1천만
☛ 서구 풍암동 대지 60평 (원룸적합) 매매가:평당 180만
☛ 서구 풍암동 대지 약96평 (상가적합) 매매가:평당 520만 (설계비포함)
☛ 서구 금호동 상가 대지 64.6평, 건평 52평 매매가:3억
☛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맨션 32평형 2층, 남향, 교통편리, 학군좋음 매매가:7천9백만

▶풍암, 금호지구 매물접수 대환영!!!
▶매도, 매수, 건축, 투자 상담 환영!!!

★믿음과 정성으로 성실, 책임중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실 여성 2분을 모십니다.

중앙국토개발컨설팅
(핸) 011-647-3500
(광주지방법원 뒷편)

상가, 점포
☛ 지산동 5층 상가, 대45평. 건 110평. 일건주거지역. 20m도로접.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메도 3억3천만원

원룸
☛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지53. 건평 층당 약40평. 지하1층, 지상4층(원룸11개, 투룸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50평. 평당20만원. 조정가

싼땅매매
☛ 광주 남구 압촌동 대촌중앙초교 건너(맹간제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840평. 평당20만원. 조정가

종교용 임야
☛ 장성 북이면 원덕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차량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면에 저수지. 정남향. 평당 12,000원
☛ 광주 동구 소태동. 13,093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됨. 지내에 약수터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있음. 평당12,000원

묘지용 임야
☛ 화순 이십곡리. 너릿재와 검분소 사이 우측 임야. 2500평. 평당 50,000원. 조정가

GS부동산컨설팅
T.572-7744, 9966
(핸)011-607-9908
(양산동 그린자이 건설현장 입)

상가임대
1층:약국,금은방,안경점
2층: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3층:안과,치과
4층:학원,기타
양산동, 신개발지 중앙4거리 코너 APT 5000여세대 밀집 지역 상권 최고

분양권매매
◉양산동 GS 그린자이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심층 남향 중간라인 매매가 1억7천
·42평형 분양가 2억500 1억2천 납부 16층 중간라인 땐앞동 전망최고 매매가 2억1천700만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납부 17층 중간라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56평형 분양가 2억8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8천8백

현진에버빌 다 량 확 보